3부, 4부, 5부 2001. 8. 275:36PM 페이지270

나이 들어 컴퓨터를 만난 사람들일수록 애가 탄다. 강박 관념으로 공연히 초조해지기도 한다. 나이 드는 현실 자체가 두려울 겨를도 없이 새로운 세기를 맞으며 이미 '사이버 세상' 이 어리둥절할 만큼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으리라.

공인 중개사, 공인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법무사, 변리사, 변호사, 의사, 작가, 디자이너 같은 전문직 종사자조차 사이버 세상에 익숙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세상이다. 사이버 공간이 이미 단순히 거래 정보를 제공하던 인터넷 1세대를 지나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시장으로 그 무한한 가능성을 열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종합상사란 개념도 바뀌어 '사이버 종합 무역 상사' 로 변신하고 있으며, 우리 국세청마저도 가상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자 상거래의 전모를 포착하지 않으면 세금을 거둬들이기가 어려워졌다.

이제부터는 자신의 지식 재산에 꾸준히 투자하지 않으면 아예 세상을 이해할 수조차 없게 될지도 모른다. 이것이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21세기의 진정한 모습이다. 신(新)지식 재산권의 개념을 뛰어넘어 불과 10년 전까지도 개인의 권리로 상상할 수 없던 희귀한 권리들이 사이버 공간을 휘젓고 다닐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급박하게 변모하는 지구촌의 흐름을 족집게처럼 짚어 내지 않으면 도태되거나 최소한의 권리마저 지키지 못하게 될 것이다. 생존을 위해 오직 하나의 효율적인 방법은 남보다 앞서 가려는 노력뿐이다. 나이를 불문하고 가상 공간에서의 자기 역할과 권리를 강화시키는 것이 바로 개인 입지를 굳히는 길이다.

성공은 기회를 포착해서 얻어지는 것이지 적당히 남의 지식을 빌려 온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제부터는 개인의 자기 혁신과 기업의 경영 합리화도 작은 아이디어 창출과 인터넷 기술의 완벽한 활용 과정을 통해 얻어질 수 있다. 21세기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도 전자 상거래의 핵심 기술과 무한한 가능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컴퓨터가 인류 사회의 모든 것을 순식간에 바꾸어 놓았고, 지금도 그 변화의 소용돌이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그 누구도 속단할 수 없는 21세기가 인터넷을 매개로 지구촌 통합의 의지를 불태우며 우리 눈앞에 성큼 다가와 있다. 이 같은 와중에서 네트워크 세대가 우리 사회의 중심 세력으로 자라고 있는 것이다.

내 홈페이지를 기웃거리는 상담 요청자들은 대부분 'N세대' 들이다. 이들의 관심은 사이버 공간을 날아다닐 권리를 차지하는 데 있다. 이 N세대들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나는 충격적일 만큼 귀중한 경험을 얻고 있다. 차제에 이 대화록을 묶어 '가상 공간의 권리를 잡아라' 라는 제목의 책을 쓸 작정이다. '사이버 공간에서 100문 100답' 이 될지 모르겠다. 《21세기에는 지식 재산권으로 승부하라》는 매년 수정 증보판으로 거듭날 것이다. 원고를 집필할 때마다 옆에서 도와 준 친구 김성길과 비서 김민정 씨, 저자의 서툰 작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준 조선일보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1999년 12월

남호현